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6.30원 하락한 1,421.00원에 마감

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6.30원 하락한 1,421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90원 하락한 1,433.40원에 개장했다. 오전 장에서 환율은 1,430원대를 횡보했으나, 월말 네고 물량 출회에 낙폭을 확대해 1,420.80원까지 하락했다.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유지하며, 1,421.0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12.8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96.7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33.40	1433.60	1419.10	1421.00	1426.90
	엔화	993.21	994.47	974.99	976.50	-
	유로화	1609.70	1611.54	1600.75	1604.45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2.48	-8.13	-15.56	-29.58
	결제환율(수입)	-1.71	-7.1	-13.92	-26.33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미-중 무역협상 진전에...1,43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9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21.00) 대비 15.05원 상승한 1,433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및 국내 정치상황 불확실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중국 관영방송 등에서 미-중 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. 반면 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는 48.7로 시장 예상치(47.9)를 상회했으나 기준치(50)를 하회했다. ISM 제조업지수 내 고용지수도 46.5로 예상치(44.6)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체 업황 지수를 하회했다.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미-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에 0.55 상승한 100.19를 기록했다. 뉴욕증시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와 미-중 무역협상 기대에 다우지수 +0.21%, S&P +0.63%, 나스닥 +1.52%로 마감했다. 한편 BOJ가 올해 일본 CPI 및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. 이에 일본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. 달러 강세 및 뉴욕증시 반등에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동일자에 사임하면서 6월 초 대선 전까지 컨트론타워 부재가 발생했으며,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에 환율의 상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0.40 ~ 1440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687.8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.0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0752.96, +83.6p(+0.21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42.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9924 억원